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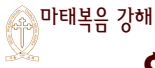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

(마 19:13-15)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예수님이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축복해 주는 모습은 매우 예외적이고 잘 용납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13절).

예수님이 마을로 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라며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지만 제자들은 막무가내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에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유대 문화에서 어린이들은 18세가 지나서야 사람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인구조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소수의 높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여자들, 종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장애인들, 병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과 약한 자들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살아나고 존중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린이의 인권은커녕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놈, 저놈 아니면 아들놈, 딸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확장 되면서 비로소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해주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셨고, 어린이들까지도 똑같이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어린이들이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순수하고 순종을 잘하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어떻게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거울삼아 자신을 살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첫째는 인권신장이고 둘째는 문명퇴치이며 마지막으로는 미신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중요성은 간과 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와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부모된 자들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 하나님께 영광되리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Love of Children

(Matt.19:13-15)

It appears that children are blessed by Jesus in the text. The situation of that time, it was an exceptional and unacceptable case in which Jesus blessed children and spent time with them.

“Then people brought little children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 on them and pray for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v. 13).

As soon as Jesus arrived at the village, people wanted to pray and ask Jesus to place his hands on them and their little children. His disciples rebuked them.

It is no wonder that at that time children's human right never existed. It was thought that after children turned 18 year-old, they could act as an adult in Greek philosophy and Jewish culture.

Children were not the subject to a census. In fact, at that time, there was no concept of human rights except a few high ranking officials. The human rights of women, servants, the poor, widows, the disabled, and the sick were completely deprived.

Such a custom was the same as not only Jewish people but also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 the human history. Nevertheless, it happen an amazing work whe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as spread, the human right of women, the weak, and children revived and they were respected.

Before the Gospel was spread in our country, we did not have human rights, and even a kind word for children. Most Koreans call their children this guy, or that guy, son damn guy, and a daughter. However, only when the gospel was spread and expanded in our country,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became respected.

The reason why Jesus loved and blessed children is that he recognized the precious existence of all human beings made of the image of God, and considered children very valuable.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1 Peter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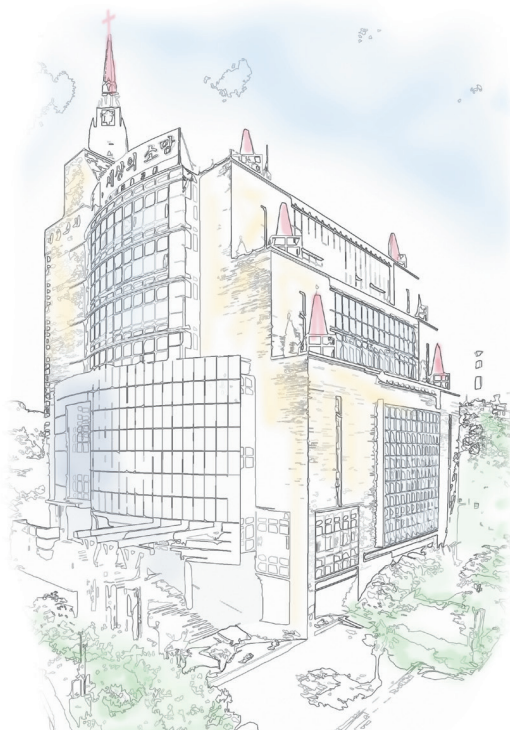
The existence of children is vigorously dependent, pure, obedient, and weak. On the other hand, how is an adult?

Jesus hopes that we will model for our children, take care of ourselves before God, look at only Jesus, and gain God's trust.

My beloved Christians,

Every place where the Christian gospel spread has greatly changed its society in three ways. The first is the human rights expansion, the second a crusade against illiteracy, and the last is the breaking of superstition. The human rights among them is said to be the value of Christianity Gospel. By spreading the Gospel in our country, the great change in our society has been human rights expansion of children and women.

However, we can still find out that it often happens that the importance of children has been passed unobserved and women's rights have not been respected in our society. Children are the future and hope of the church and nation. Every parent should hand over the inheritance of our faith to children. I sincerely pray that we will have our country, people, and the church for which we should give glory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4 사명자 대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7일(월)~22일(토) / 강사: 박노철 담임목사
자율기도: 연인원 4,516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19독 진행중

2014 사명자 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11월 5일(수) 기준으로 24시간 자율기도 참석 연인원은 4,516명이며 성경 읽기는 22,580장 19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언제나 열린 기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3일(목) 오전 8:30~17:00 / 웨스트민스터홀

2014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 13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수험시간에 맞춰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인도
1	국어	8:30~10:00	천세종 목사
2	수학	10:30~12:10	박노철 목사 / 황 광 목사 / 천세종 목사
점심시간		12:10~13:00	
3	영어	13:10~14:20	서명철 목사 / 장석남 목사
4	사회 / 과학탐구 / 직업탐구	14:50~15:52	유문건 목사 / 박영준 목사
5	제2외국어 / 한문	16:20~17:00	조원영 목사 / 서준권 목사



2014년 피택자 당회 고시 및 면접

2014년 피택자(장로, 집사, 권사) 당회고시 및 면접이 실시된다. 피택 집사, 권사 당회고시는 11월14일(금) 오후7시 801호에서 실시되며 면접은 당회고시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구분	일시	장소
교육	1차: 11월 14일(금) 오후 8시	601호
	2차: 11월 15일(토) 오후 6시15분	
	3차: 11월 15일(토) 오후 7시	
면접	1차: 11월 14일(금) 오후 9시	1조 - 602호
	2차: 11월 15일(토) 오전 7시	2조 - 606호
	3차: 11월 15일(토) 오후 7시 45분	3조 - 607호

준전임 교역자 2명 청빙

지난 11월5일(수) 당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사역을 담당할 교역자 면접을 실시하여 2명의 준전임 교역자를 선발, 11월7일(금) 정책협의회 시 열린 당회에서 청빙기로 의결하였다.



박노아 전도사 (1985년 생)
- 초등부 담당 -

- 영남대학교 인문학부 철학과 졸업
-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 조기졸업
-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예정



이진광 전도사 (1983년 생)
- 중등부 담당 -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사(Th.B.)
-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역학석사(M.Div.) 졸업예정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3)

(문 153) 스가랴9장-14장은 1장-8장의 기록자와 동일인의 기록인가?

(답) 어떤 이들은 스가랴9장~14장을 주전 3세기 또는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스가랴가 활동한 주전520년부터 480년과 맞지 않으므로 스가랴의 기록설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장-8장과 9장-14장 사이엔 얼마 동안의 시간적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516년에 완성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전반부의 것과 유다의 제2전성기와 연관된 후반부의 상황이 달라 그 강조점과 문장 스타일에 상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의 저자가 다른 것이라는 증거는 문자적으로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1-6장에서는 밤에 본 8가지 환상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7-14장에서는 금식문제에 대한 질문과 종말론적인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스펠트(Eissfeldt)는 9-14장에 처음8장과 다른 저자에 의해 쓰였다는 증거로 스가랴 11:12-13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 11:12-13에 목자의 값으로 지불된 은30에 대하여 마태복음 27:9-10에서는 예레미야의 말로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스가랴 9-11 장 (또는9-14장)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27장이 스가랴 11장으로 부터만 인용된 말씀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을 말씀했습니다.(9절) 이것은 예레미야18:2이하의 토기장이가 그의 집에서 진흙으로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관찰하는 선지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마27장이 예레미야서(밭이라는 단어가 빌려졌다.)와 스가랴서를 결합한 것이므로 더 옛날 선지자면서 더 중요한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만 언급한 것입니다.

이 같은 유사한 예가 막1:2-3에서도 보여 집니다.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실제로는 말라기 3:1에서 시작하여 이사야40:3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가는 다만 이사야의 글이라고만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 계속)

VIP새생명 축제-유년부

들은 대로 전도했더니...



노애리 집사 (유년부 교사)

오전 9시에 드리는 유년부와 11시 20분에 드리는 유·초등부 연합 2부 예배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VIP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주 전 - 자신들이 어떤 친구들을 초대해야 할지 써보았습니다. 3주 전 - 그 친구들에게 줄 초대장을 손 글씨를 직접 써가며 만들어서 몇 장씩 가져가,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효과를 덧입혀 나누어 주었습니다.

2주 전 - 친구들이 오면 앉을 방식을 만들며, 이 방식이 홀로 있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1주 전에는 다시 한 번 초대장을 전해 주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친구초청 달란트 잔치 때 친구에게 초대장을 받고 처음 유년부에 왔던 우리 반의 8살 남자 친구는 이러한 4주간의 과정을 함께 하며 자기도 이렇게 해서 온 거냐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놀라운 사실을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안성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천국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도했더니, 10월 26일 주일 오전, 유년부실에 있는 친구 중 1/3은 VIP였습니다! 아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준 구원의 말씀 선포, 말씀 빙고 맞추기, 구원의 깃발을 만들며 천국성 쌓기, 간식도 함께 만들고, 찬양을 부르며 교제하다가 구원 인증 팔찌를 받는 순서까지...

서울교회 유년부 예배실을 밝은 그 귀한 시간부터, 아니 우리 8, 9, 10살 유년부 친구들이 마음으로, 고사리 손으로 친구들의 이름을 써내려간 그 순간부터, VIP 명단에 올려진 그 친구들의 가정의 여러 일들, 부모님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질서 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오래지 않아 뿌리 내리게 해주실 것도 그 친구들의 평생 인생에 가장 큰 선물 같은 일이었음을,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효과로 아이를 선뜻 친구 따라 서울교회에 보내주신 부모님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주실 것도 믿으며 기도합니다.

김안성 목사님께서 VIP친구들 부모님께 받은 답신 중 아이가 다이소 가는 길에 서울교회를 보며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기쁜 소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주는 초대장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초대장'인 것을, 유년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전도한 것도, 받아 들고 오는 친구들도 모두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VIP새생명 축제-고등부

새생명의 귀함



김도열 협력장로 (고등부 교사)

10월 26일 주일은 잔칫날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하던 새생명을 맞이하는 예배, 주님께 향한 설렘과 감사의 시간이기에 그 얼마나 좋았던지요. 지난 수개월 동안 천세종 목사님께서 깊은 간구와 말씀을 전파하시고, 차영도 부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며 지휘하셨습니다. 2주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금요 기도회 후에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토요 학부모 기도회 후에 학원가를 돌며 전하였습니다. 수능에 가까운 날이기에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새생명 전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찬양, 위십, 악기연주 등이 포함된 예배부터 한티 공원에서의 새생명들

환영 파티까지 고등부 임원들과 부감님 이하 선생님들의 미치지 않은 손길이 없었습니다.

주일 고등부예배에 평소 100여 명 출석하는데 사명자 대회기간에 45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과 우리 모두 헌신의 결과이기에 감사합니다. 고등부 한 학생, 한 학생의 전도가 그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대라고 합니다. 20~30년 전 그 많던 그때의 기독교 학생들이 부모가 되어서 더욱 청소년 복음화율이 늘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했기에, 우리 애들을 다 어디로 몰았기에 교실에서 하나님을 아는 애들을 볼 수 없게 되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원가인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부흥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을 통해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첫 선교지인 가정 우리가 기도하며 가꾸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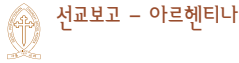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을 향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만이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땅에 삶의 진정한 가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내가 먼저 날마다 죽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추수를 위해 구원받고 사명받은 자로서 알찬 결실 거두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산 후스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황연규 선교사님이 섬기는 두란노 신학교에서 주일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윤낙호 장로님께서 격주로 함께하여 주시고, 브라이언, 베르실다 두 분 전도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브라이언, 베르실다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후 첫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인접한 서민층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역 주민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기를 기도합니다. 10월 5일 처음 모였고, 1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에노스와 산 후스토의 두 교회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혼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월 24-26일까지 네우겐 주 네우겐 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고 10월 30-11월 1일에 네우겐 주 후닌 데 로스 안데스 시에서 하반기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주 강사 유진화 선교사의 출애굽기 강의와 기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왕복 3000킬로미터가 넘는 여정과 세미나 기간에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산 후스토에 새로 열어주시는 예배 처소와 기존의

예배당 두 곳에 부족한 저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신학교에 재학하면서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도사님들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상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치안불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이 노상강도에 게 차량과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선교사역과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북쪽 국경 살타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비롯한 사역을 확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마르코스 목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다녀온 선교여행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김인서 현예옥 선교사

기도 제목

1. 아르헨티나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2. 지속적으로 교회개척 하게하여 주소서.
3. 신실한 선교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소서.
4.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5. 불안한 치안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6. 전도지를 통하여 많은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7.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소서.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베들레헴찬양대(대장: 오지열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유대왕 집사의 지휘로 "Dona Nobis Pacem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Mary Lynn Lightfoot곡)", "함께 하리라(Doug Holck곡)"를 합창하고, 솔리스트 강민석, 박태진, 염동언, 최재호 성도가 4중창으로 "감사드리세 (김기영 곡)"를 부른다. 오르가니스트 김정희 성도, 피아니스트 박수강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월10일(월) 국민운동기독교운동 공동대표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민운동기독교운동 4대본부장 모임을 소집한다. 감사신우회 예배설교를 한다. 12일(수) 한국로잔 월례회에 참여한다. 14일(금) 로잔동아리모임 로잔캠프에서 격려사를 한다. 15일(토) 종교개혁500주년 5차학술대회에서 개회설교를 한다.

■ 주일식당봉사 :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11.9) 엘리야선교회 뽀뽀전도회(11.16)

■ 금주의 식사 제공 : 차재은 집사 안경옥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제 8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갖는다 11월 16일(주일) 오후 3시, 101호



우리교회 사랑부(지도: 박영준 목사, 부장: 강성은 집사)는 제 8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11월 16일(주일) 오후 3시 101호에서 갖는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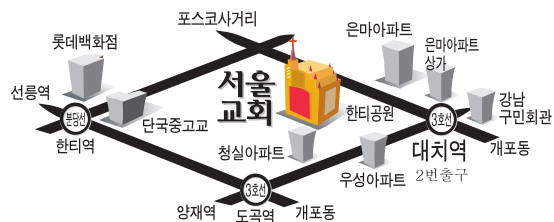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있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2. 사명자 대회 기간 중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피택 집사와 권사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양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